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4/26℃ 목포 14/23℃ 여수 14/20℃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3년 (음력 4월 1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87호 1판 2010년 5월 31일 월요일

선택 6·2 지방선거 D-2 유권자도 48시간 남았습니다

표 찍을 후보 8명 메모합시다

광주일보가 제안하는 '투표 6대 포인트'

주부 선혜숙(52·광주시 동구 학운동)씨는 엊그제 배달된 선거공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 6·2 지방선거에서 시장·구청장·시의원·시의원 비례대표·구의원·구의원 비례대표·시교육감·교육의원 등 무려 8명을 뽑는 탓에 후보들의 공보도 엄청났다. 월간지 한 권에 가까운 분량이었다. 펼쳐보니 방바닥을 가득 메웠다. 누구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했다. 선씨처럼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투표일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세금의 절반을 쓰는 풀뿌리 살림꾼을 무작정 뽑을 수도 없는 일이다. 광주일보가 이번 선거를 내 고장 살리기 선거로 치르는 '6대 참여 포인트'를 제안한다.

❶ 공약 꼼꼼히 살펴보자

이번에 잘 뽑아야 앞으로 4년이 편하다. 내가 사는 동네의 발전도 기약할 수 있다. 공보만 잘 살펴봐도 어떤 후보가 동네 살림을 잘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

공약 중에서도 숫자가 포함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들어간 공약이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 공약일 수 있다.

참 공약의 기본 요건인 목표·기한·재원 마련 등을 잘 요약한 후보가 누구인지 찾아보자.

❷ 선거공보 둘째 면 꼭 읽자

선거법상 후보자가 반드시 밝혀야 할 신상 명세가 공보 둘째 면에 간단명료하게 게재돼 있다. 후보의 인격과 양심이 압축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금은 잘 냈는지, 전과는 몇 건이나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병역은 마쳤는지, 아들도 군대에 보냈는지 상세히 챙겨보자.

전과는 파렴치 범죄인지 시국사범인지,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다면 이유는 뭔지도 나와있다.

❸ '묻지마' 줄투표 안된다

내가 낸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할 지방의원을 뽑아야 한다. 무조건 당만 보지 말고 업적 등을 따져보고 찍어야 한다.

특히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각 정당 후보가 고루 뽑혀야 견제와 균형을 보장해 부패를 막고 지역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유권자들이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만 뽑아 보낸 때문인지, 그동안 '거수기'로 전락해 시민들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초의원 선거구도 자기들 유리하게 고쳤다.

❹ 지방신문을 참고하자

공약과 자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후보 공보물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보도된 지방신문 기사와 후보자 광고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방신문일 수록 지역사정에 정통해, 적확한 정보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제공한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참고가 가능하다.

지방신문 광고 또한, 후보자가 내세우는 지역발전 비전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 행정철학과 주민에 대한 의식이 녹아있어 후보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다.

❺ 막판 돈선거 고발하자

주변에서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눈에 띄면 선관위에 제보하는 공명선거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전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 접전지역은 더욱 그렇다. 돈 선거를 하는 후보를 뽑았다가, 재선거라도 하게 되면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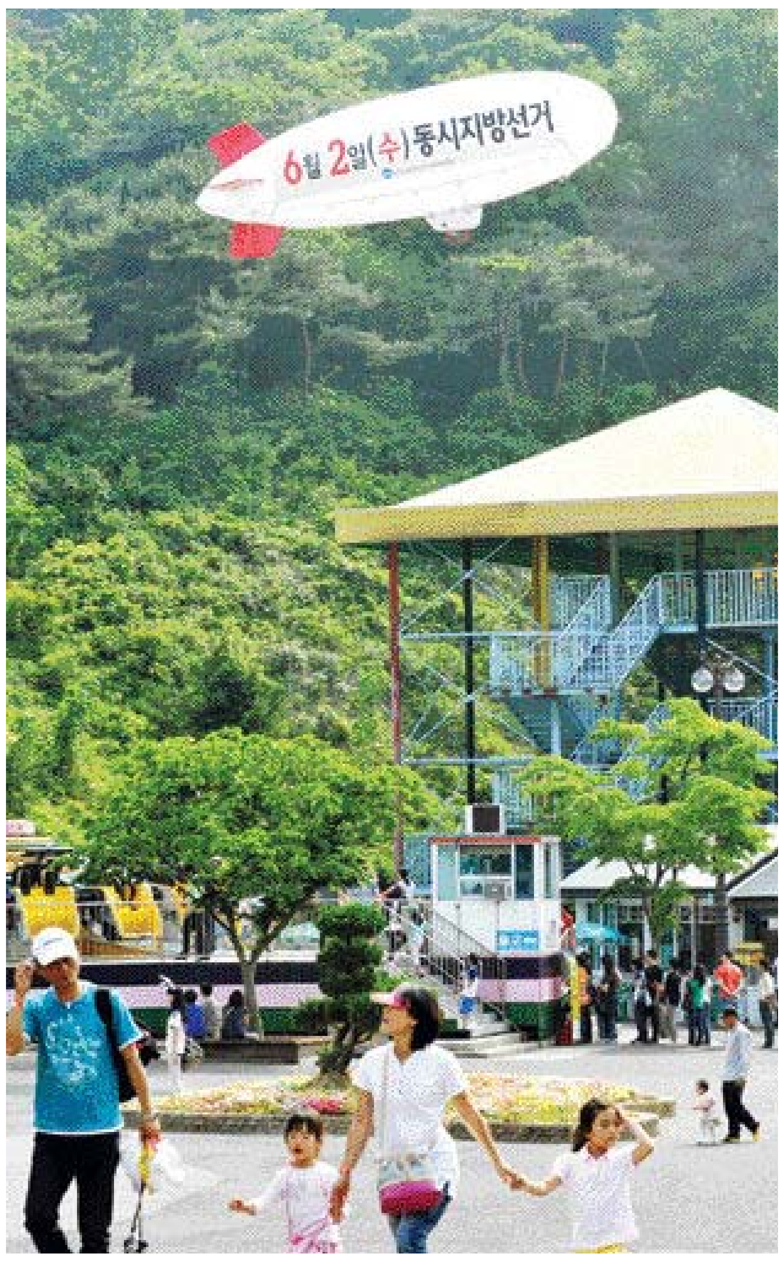
선관위도 막판 돈 선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제보 내용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❻ 기표소서 헷갈리지 말자

이번 선거에서는 시장·도지사, 군수·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8명을 2차례에 나눠 투표해야 한다. 후보도 그만큼 많아 막상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면 누굴 찍기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각 후보들의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 찍을 후보를 정했으면,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메모지에 적어 뒀다가 지갑 같은데 넣어서 투표장으로 가자. 잘못찍거나 무효표를 만들지 않고 당당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표합시다" 6·2 지방선거일을 사흘 앞둔 3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광주 북구 패밀리랜드 놀이공원 상공에 대형 비행선을 띄웠다. 비행선 몸체에 '6월2일(수) 동시지방선거'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유권자 59.5% "반드시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의 59.5%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동층은 52%에 육박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2.5% 포인트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9.5%, 아마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24.2%로 전체 응답자의 83.7%가 투표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의향층이 18대 총선 당시 조사결과에 비해 3.9% 포인트 하락해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를 전후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18대 총선 당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3.4%였으나 실제 투표율은 46.1%에 그쳤다.

또 투표의향자를 대상으로 지지후보 결정 여부를 물은 결과, 51.6%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아직 상당수 유권자가 부동층인 것으로 분류됐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후보선택시 고려사항은 정책.공약(32.8%), 인물·능력(30.0%), 소속정당(15.2%), 주위의 평가(7.3%), 정치경력(5.8%) 순이었다. /연합뉴스

"대북 전단살포 당분간 보류"

이대통령 "전쟁 두렵지 않지만 할 생각 없어"

군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실시되는 전단 살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당초 기상여건 때문에 전단 살포를 연기해왔는데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 전단 살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계획의 실행 여부는 북한의 대응 태도와 주변 상황에 달려 있다"며 전단 살포가 보류됐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금주 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등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자극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에 군당국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체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 심리전 자제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2차 세션에서 "천안함 사태때문에 지역정세가 불안하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